

## 제 5회 『애덤 스미스 입문』\_에이먼 버틀러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4명

2019년 11월 17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 ※교재 외

#### - 자기암시

“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가 중요하다. 수시로 저 말을 입 밖으로 꺼내어 스스로 암시시켜야 한다. 인간의 심리에 대한 비유를 보면 의식 10%, 무의식 90%로 빙하에 많이 비유한다. 10% 의식의 힘으로는 습관과 같은 무의식적인 행동을 통제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부정적 사고방식을 이겨낼 수가 없다. 무의식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증거는 무척이나 많다. 인상 깊었던 사례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 벌기 어려운지, 부자 되기 어렵냐고 쉽냐고 물어보면 확신에 차서 어렵다고 대답한다. 학생들은 아직 돈을 벌어본 적조차 없으나 어렵다는 부정적인 암시로 세뇌되어 있다. 돈 버는 일이, 부자가 되는 일이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시작부터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 - 실력서열(경쟁)

실력서열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피터슨 교수는 이야기한다. 서열세우기, 경쟁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자신의 아버지가 뇌종양이라면 뇌종양 분야의 의사들이 서열세우기에 의해 되어있기를 바랄 것이라는 얘긴다. 똑똑한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복잡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그것이 서구사회가 문명을 발전 시켜온 합리성이다. 성공 예측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표는 지능이고 두 번째는 성실함이다. 열심히 일하는 영리한 사람들이 앞서나간다. 부패와 사이코패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점들이 분명 있을 것이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서열체계는 완벽하지 않으나 결함들은 드물게 생기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실력서열체계는 합리적으로 작동한다.

특히 젊은이들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사회의 실력서열체계는 수천 개나 존재한다. 각자는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교재

### • 경제 제도의 역사

스미스는 유럽에서 봉건 질서의 붕괴를 기록하고, 로마 제국 멸망 후 봉건법의 기원들과 상업이 어떻게 그 봉건법이 대체되게 했는지를 탐구한다. 거래와 상업의 시대 이전에는, 부가 대영주들에게 있었다고, 그는 추측한다. 그리고 이 귀족들은 불가피하게 또한 지방 법적 당국도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의적인 권력이었는데, 봉건법이 그것을 완화하려는 시도로서 발생되었다 - 비록 단지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지만, 그러나 거래와 상업의 융성으로 지주들의 부가 잠식되고 그들의 종복들이 독립적인 소작인들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소작인들은, 이제 자기들 자신의 열망을 가지고서, 더 많은 안전을 요구했고, 봉건 체제는 지체 높은 사람들과 천민들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의 지배에 길을 양보했다. 상업의 융성은 정치 권력에서 경제 권력을 분리했었다 그리고 경제 권력은 참으로 강력하다.

스미스의 견해로는, 이것은 운 좋은 결과였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자본을 보호했고 거래, 상업 그리고 제품이 시민적 정의의 보호 아래 증가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는 노동수익률이 기업의 영업이익보다 높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을 받은 노동자가 150만원을 쓰고 50만원을 남겨 저금했다고 치더라도 25%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들의 경우 그런 수익을 기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률의 차이에 의해 부는 평등하게 분배된다고 볼 수 있다.

### • 중상주의자와 화폐

화폐는 그저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스미스는 우리에게 환기시킨다. 외국 무역은 총 상업의 작은 일부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금의 이동은 큰 국가를 거의 파멸시킬 것 같지 않다. -중략- 스미스는 우리가 썩기 쉬운 포도주를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교환으로 내구적인 금속 제품을 수출하게 되어 아주 행복하다고 되받는다. 그러나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향아리들과 냄비들을 축적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도 금과 은을 그것들의 유용한 양을 넘어 저장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활동력이 없는 금속의 초과분은 비생산적인 자본이고, 비생산적인 자본은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 없다.

- 흔히 사람들은 돈이나 금 등 현물자산이 많은 것을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편견이다. 실제로 돈이 쌓이는 경우는 교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혹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계속해서 교환이 일어나는 동안만 성장한다. 단지 현금이나 금이 많다고 부유하다고 볼 수 없다.

• 절대 우위

우리가 우리의 금 및 은 적립금을 보존할 것을 기대하여 수입을 제한할 때, 그것은 소비자들이 선택의 여지를 덜 가진다는 것, 즉 그들이 재화를 더 낫거나 더 쌀지 모르는 다양한 외국 생산들로부터 사기보다 국내 생산자들로부터 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스미스는 계속한다. 이것은 정책을 값비싸고 비생산적이게 한다. 직업들 사이의 분업에서와 같이, 국가들도 역시 자기들이 가장 잘 하는 것을 하고 자기들의 잉여를 교환해야 한다. 이 주장은 오늘날 우리가 절대 우위라고 부르는 원리의 초기 해석인데, 스미스는 생생한 예를 가지고 그 주장은 보증한다.

온실, 온상, 그리고 온벽을 써서,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좋은 포도들을 재배할 수 있고, 적어도 똑같이 좋은 것을 외국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비용의 대략 30배에 그것들로부터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그저 스코틀랜드에서 보르도 산 붉은 포도주와 부르고뉴 산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장려한답시고, 모든 외국 포도주들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법률인가?

그러한 개입주의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값비싸다. 그것은 또한 부패하기도 하다.

- 정의는 효율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는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는 종종 농업이나 어업등의 생산물을 국가보조금으로 수입품과 경쟁시키곤 하는데, 이것은 시장 왜곡을 일으키고 또 그 보조금 지급주체의 부패를 만들곤 한다.

• 관세와 보조금

만약 일시적인 관세로 다른 국가들이 자기들의 관세가 중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을 찬성할 논거가 있을지 모른다고, 스미스는 인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정책들은 무의미하거나 해롭고, 우리는 그것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의심해야 한다. -중략- 또한 우리가 반드시 무역 역조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스미스는 중상주의자들에게 말한다. 어느 나라가 자기가 소비하는 것 이상으로 생산하고 있는 한, 그 나라는 저축하고 있고 자기의 자본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한 나라는 여전히 자기가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수입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잉여를 생산하고 더 부유해질 수 있을 것이다. -중략- 날 혹은 훈제되지 않은 청어 어업에 대한 장려금은 용적 톤수 장려금이고, 배의 적재량에 비례하지, 어업에서의 배의 근면이나 성공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걱정스럽게도 배들이, 물고기가 아니라, 장려금을 잡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장비를 갖추는 것이 너무 흔해졌다.

- 관세는 기본적으로 교환에 저항을 갖고 오기 때문에 국제교역에 있어서 해롭다. 또 보조금은 그것이 목적하는 바가 아니라 수단에 집중하게 되어 쓸데없는 조세 지출이 된다. 예를 들어 복지정책은 사람들이 자립하기 위해 만들어지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것에 중독되어 자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 • 식민지 무역 제한

아메리카가 오직 본국하고만 무역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정책은 영국의 자본과 기업을 더욱 생산적인 용도들에서 멀리 끌어당겼 - 고, 자기의 번영을 아메리카의 번영과 함께 떨어뜨렸으며, 양쪽 다에서 더 느린 자본 축적과 그러므로 더 낮은 미래 소득을 초래했 - 다. 그가 말하길르, 영국은 아메리카를 '고객들의 국민'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 정책은 대신 그들을 농부들에서 정치가들로 전환시켰는데, 영국의 산업이 아주 많이 대서양 무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이 크다. 오직 무역 - 및 정치적 - 자유화만이 그 위협을 줄일 수 있을 것이지만, 영국의 투자가 아주 왜곡되어버려서 필요한 조정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아메리카에 대한 영국의 무역 제한들은, 생산자 이익들이 지배하는, 중상주의 사고의 또 하나의 예다. 그러나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끝이자 목적이다. 그리고 생산적인 이익은, 오직 그것이 소비자의 이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할지 모르는 한에서만, 돌보아야 한다.

- 생산은 오직 소비를 전제로 해서만 이뤄진다. 여기에는 어떤 사회적 목적이나 다른 가치가 없다. 사회가 목적하고자 하는 모든 바는 시장에서 교환되면서 저절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시장은 그것을 가장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려는 사람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 • 자유주의적 대안

설사 자유가 결코 완전하지 않더라도, 시장 경제는 생존하기에 충분히 강하지만, 자유 경제 체제의 성공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라고, 스미스는 주장한다. 스미스의 말로, '명백하고 단순한 자연적 자유 체제는 저절로 수립된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놔두어진다 -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모든 사람의 이익들을 촉진한다. 어떠한 중앙 지휘도 필요하지 않다. 스미스의 견해로 이것은 행운인데, 왜냐하면 자원들을 특정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모든 체제는 '실제로 그것이 촉진하려고 의도하는 큰 목적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 자유시장경제는 완벽한 체제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인류가 고안한 그 어떤 체제보다 훌륭한 체제다. 왜냐하면 시장경제는 중앙의 간섭이 없이도, 한정적인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는 어떤 간섭도 없이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게하는 목적을 훌륭하게 수행한다. 여기에 다른 어떤 목적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시장경제가 촉진하고 의도하는 큰 목적을 파괴하게 된다.